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함 주 현

2022년 8월

#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경 숙

함 주 현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함주현의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 부 권   
위 원 이 서 현   
위 원 박 경 숙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8월

# 목 차

## 국문초록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5
II. 이론적 배경 .....	7
1. 마을공동체미디어 .....	7
1) 지역언론의 기능과 역할, 대안 .....	7
2) 공동체와 미디어의 개념 .....	10
2. 선행연구 검토 .....	18
1) 언론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연구 .....	18
2) 마을과 공동체, 미디어에 관한 연구 .....	22
3.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 .....	25
1) 운영 현황 .....	25
2) 프로그램 내용 .....	29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32
1. 연구문제 .....	32
2. 연구방법 .....	33
3. 연구대상 .....	34

IV. 연구결과	37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의 시작과 운영방식	37
1)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시작	37
2)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 과정	39
2.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속을 위한 활동가들의 행위와 역할	42
1) 마을 아카이빙	42
2) 소통을 통한 주민 자치의 실현	44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과정과 향후 과제	47
1)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현재	47
2) 발전과 지속을 위한 과제	49
V. 결론 및 함의	54
1. 연구 결과 및 요약	54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58
<참고문헌>	61
<Abstract>	64

## 표 /그림 목차

<표 1> 미디어의 형태 .....	9
<표 2> 공동체와 미디어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원적 관점 .....	14
<표 3> 공동체미디어의 개념 .....	14
<표 4>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현황 .....	28
<표 5> 와들랑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현황 .....	30
<표 6> 연구대상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자 .....	35
<그림 1> 한라일보 연재기사 ‘제주살이 안녕하십니까’ 보도내용 캡처 .....	5
<그림 2> 지방소멸 위험지수 및 228개 시군구별 지방소멸위험 현황 .....	12
<그림 3> 전국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 현황 .....	17
<그림 4>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지도 .....	28

##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관한 연구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마을과 주민 간의 소통, 공동체에 대한 관심,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이미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해보았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새롭게 형성되는 제주 마을공동체의 민주적인 주민소통과 공동체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갈등의 문제, 지역과의 불균형, 마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이며, 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심층인터뷰로 진행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의 시작과 운영방식을 분석한 결과, 마을공동체미디어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미디어를 통한 소통, 그리고 도내·외 행정적 지원으로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가들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디어 교육과 주변 지인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활동가들의 노력이 결국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속을 위한 활동가들의 행위와 역할을 분석한 결과, 활동가들은 마을과 사람을 기록하는 아카이빙의 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해 구술의 기록, 후세를 위한 현재의 기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록과 소통을 넘어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

향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과정과 향후과제를 분석한 결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이 미디어 제작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다. 지속적인 유지와 운영을 위해서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보상과 킬링 프로그램의 제작,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등 내부조건과 법·제도적 정비, 행정적 지원, 저작권 문제 등 외부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키워드 : 마을공동체미디어, 공동체활성화, 지속가능성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산업화·경제화 바람으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개발정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런 영향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에는 양적성장이 생겨났지만 반대로 지방도시, 농촌지역은 마을공동체가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 주민 간의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과거 사회적인 패러다임이었던 도시개발정책은 2000년대 들어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기존의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에서 민간 또는 지방자치가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상향식 개발을 하고 있다. 최근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의 자원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마을재생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마을특화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지역과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들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주민자치로 약해진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마을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이다.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연 어떻게 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고, 지역과 환경에 따라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도 이유도 달라 그 누구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짐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공동체의 목표이기도

하다.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 대신 공동체와 공공선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를 말하며(최성은, 2014) 공동체주의는 현대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이념과는 달리 사회적 책임과 사람들의 연대를 중요시한다(McQuail, 2005). 또한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공동체 내에서의 소통, 교류,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이다. 주민이 주인이자 손님, 즉 주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이용한다. 따라서 공동체 중심 자치제도의 성공에서는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러한 공동체는 각각의 ‘나’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양정화, 2017).

제주지역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10년 초부터 시작된 제주 이민 열풍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없던 새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농어촌지역은 젊은 사람들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다. 사람이 없는 빈집은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로 바뀌었고, 해안가 마을은 높은 건물과 해양레저체험장으로 변했으며 도로에는 자동차가 넘쳐났다. 제주가 낯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매력을 맘껏 느끼며 살아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전국각지에서 제주로의 이주를 선택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제주로의 여행을 망설이지 않았다. 1980년대 신혼여행의 성지였던 제주가 다시 여행자들의 성지가 되었다. 아파트공동체가 싫어서, 남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기 싫어서, 우리 아이는 드넓은 자연을 마주 보며 키워보고 싶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제주도를 선택했고, 제주도는 문화, 경제, 사회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제주도에는 권당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사전적으로 ‘친인척 그리고 오랜 이웃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문화’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권당문화는 제주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데 이를 반대로 말하면 ‘친인척 그리고 오랜 이웃’이 아니라면 권당이 아닌 것이다. 2010년대 제주 인구를 빠르게 늘려갔던 소위 제주 이주민들은 제주권당문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평생을 제주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주민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이주민들 또한 제주인들에게 다가가기고 하지 않았다. 이는 너무도 급격한 변화를 맞은 제주도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뒤늦게 정책적으로 해소하는 데 그쳤으며, 이주민, 원주민, 갈등, 배척 등의 단어는 누구의 마음속에서도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이는 지역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역 언론의 한계이기도 하다. 지역 언론은 제주도의 정치, 사회 등 굵직한 이슈들로 채워나가고 있었으며 관광, 문화 등 핫이슈를 보도하는 형태다. 도내의 언론매체들은 많아졌지만 보도내용은 획일화되었고, 제주 마을공동체의 분열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나 또는 내가 아는, 내가 관심 가는 주제와 사람’은 지역언론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의 기억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6월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시설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영상 촬영과 편집 장비 등을 구축하는 데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참여자는 장비구축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2016년 9월 27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2019년 10월 10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상태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밝힌 조례 제정 이유로는 “새롭게 형성되는 제주 마을공동체의 민주적인 주민 소통과 공동체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콘텐츠 개발 및 육성과 미디어 분야 기초 인력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고 소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온라인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362호, 2019). 이 지원 조례안 제5조에 도지사는 지원 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방안,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장

비구축과 콘텐츠제작, 운영인력 양성과 재교육, 마을공동체미디어 교류협력 등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두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6). 이러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안은 공동체미디어의 목적 및 마을주민의 주체적인 생산 및 배포, 공동체 소유, 미디어 다양성 등의 공동체미디어의 이론적 함의를 같이한다.

공동체미디어란 기존 주류 미디어와 다른 제3영역의 방송을 말하며 공동체미디어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가 운영하는 방송을 말한다(최성은, 2014). 국가와 시장 영역이 주도하던 방송 구조에서 제한적인 참여만이 가능했던 일반 시민들이 직접 방송국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최성은, 2014).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고자 하는 대상은 제주지역 특히 구좌읍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마을공동체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공동체에 속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협력이 우선된다는 것이기에 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체미디어가 공동체활성화와 지속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내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마을미디어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미디어와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통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겠다. 구좌읍<sup>1)</sup> 와들랑라디오 사례를 중심으로 필요성과 과정, 그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동체미디어가 지역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미디어 활동가의 측면에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 더불어 지역적 특성과 공동체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동체미디어를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해 공동체미디어가 지속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겠다.

---

1) 제주도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시의 읍면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 2. 연구의 목적

공동체미디어는 공동체에 속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된 미디어이다. 공동체미디어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역사나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은 지난 몇 년간 급격한 변화를 만났다. 지역 공동체로 대표되는 제주의 공동체가 이주민들의 이주로 인해 문화·사회적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이는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 문제로 이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책과 제언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결국 의사소통에 의한 자율적인 공공의 영역이 생겨야 함을 인식했다. 다음 <그림 1>은 제주 이주민들의 현실적인 삶을 다룬 연재 기사의 대표 이미지이다.

<그림 1> 관련 보도내용<sup>2)</sup>



2) 한라일보 연재 기사 '제주살이 안녕하십니까' 보도내용 캡처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미디어는 시민사회와 상호작용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와 시장과 비견될만한 잠재력을 발현하게 되었다(김은규, 2003).

이러한 미디어가 공공영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의 구조와 의사소통의 흐름 속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공동체미디어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한다(양정화, 2017).

제주도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중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례는 세 곳의 마을공동체미디어이다. <와들랑라디오>, <외도마을방송 라이브소울>, <공동체미디어 제주살래>는 제주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각 사례들에 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주지역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위 3곳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시작 배경과 운영에 있어서 공동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주민들의 소통으로 지역의 정보와 소식을 담아내는데 있어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살펴본다.

최근 들어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마을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환인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지속방안의 정책적 방안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마을공동체미디어

#### 1) 지역언론의 기능과 역할, 대안

일반적으로 언론은 TV, 라디오, 신문 등과 같은 레거시 미디어 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만들어진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로 수용자들의 여론을 형성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언론은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여 수용자들에게 지식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공공재인 동시에 그 대가로 정치·경제·사회적 이윤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데 있어서 개인들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언론도 지역주민들에게 정보와 오락의 제공과 같은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은 다르지 않지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언론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사를 수렴하는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두루 제공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금껏 지역언론은 지역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언론사 간의 중복성, 공정성 등의 문제들로 지역의 정보와 문제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으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언론은 먼저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주민을 대신해서 해결하는 기능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통합과 연결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지역언론이 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주민의 액세스권을 충족시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지역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은 기능의 확대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성, 공간성, 인력문제 등의 한계로 인해 또한 지역언론사의 언론관, 광고 수주, 청취율, 시청률 등으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지역언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참여로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들의 미디어 활동이 시작되었다. 시민미디어란 광의로 시민참여 공간이 보장된 미디어이며, 협의로는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소유 및 운영하고, 방송제작에도 참여하는 미디어를 말한다(김은규, 2003). 시민들의 미디어 활동은 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공동체미디어’로 말한다. 공동체미디어는 공공미디어와 상업적 미디어의 대안적 모델로서, 시민 참여의 중요한 공간으로 작동된다. 공동체미디어는 운영에 있어 독립적이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동체 기반의 단체로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양정화, 2017).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지역사회의 활동을 견인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론장 역할을 하면서 시민의 역동성을 재발견하게 된다(이희량·김희영, 2017).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주류미디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역의 의제와 이슈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대안미디어적 성격을 갖는다. 활동 주체의 입장에 따라 커뮤니티미디어, 공동체미디어, 시민미디어, 풀뿌리미디어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임민아, 2021).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시민들의 소통공간이자 매개체로 지역사회를 실천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껏 공영미디어와 민영미디어로 양분화 되어있던 언론에 대안적 역할로서 기존 미디어와 완전하게 차별화된 제3의 미디어로 정립될 수 있다. 이처럼 공동체미디어는 지역사회와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적 역할로서 대안미디어, 참여민주주의의 실천,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언론과 지방행정의 일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체미디어는 <표 1>과 같이 공영·민영미디어와의 차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1> 미디어의 형태

구 분	공영미디어	민영미디어	공동체미디어
소유형태	국영/공영	민영	공동체
목적	공적서비스	이윤	공동체활성화
운영	공적기구	사적자본	지역사회/공동체
제작	전문제작진	전문제작진	시민/공동체
재원	수신료(광고)	광고	공적/후원/기부

<출처: 제12회 제주문화누리포럼 정책토론회 중 발췌, 2022>

마을공동체미디어는 공영미디어, 민영미디어와는 차별화된 목적과 운영, 제작과 재원 그리고 소유형태를 가진다. 주민들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공동체가 되어 운영하여 마을의 이슈를 나누고, 마을의 목소리가 되는 미디어다. 특히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비영리, 공익성, 자발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현대의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생산적인 개념은 하버마스(Habermas)에서 비롯되었는데, 하버마스(Habermas, 2016)는 공론장을 ‘사회와 국가를 매개하는 영역으로서 공중이 스스로를 여론의 담지자로 조직해 나가는 곳’이라고 정의하였으며(박흥원, 2005) 또한 그는 새로운 미디어인 신문은 시민적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버마스에게 공공영역이란 개인적 생활, 노동, 가족 등 친밀한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사적 영역과는 구분되는, 구조화된 사회적 행위와 의사소통 관계의 영역을 의미한다. 하버마스는 자본주의의 확산과 함께 공공영역이 출현했으며, 그 주요 특징은 공개적 논쟁, 비판적 검토, 완전한 보도, 확장된 접근성, 국가통제로부터의 탈피를 통한 경제적 이해로부터의 행위자의 자율성 등이라고 이야기한다.

지역언론의 한계에 대한 대안적인 미디어로서의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제주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의제로 선정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는 공론장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강정 해군기

지, 제주 제2공항 등 제주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주요 의제들로부터 제주의 공동체는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다. 제3섹터로서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기능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 저널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 2) 공동체와 미디어의 개념

우리들의 삶은 태어남과 동시에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시작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족공동체는 혈연을 근거로 운명처럼 정해져 평생을 같이 한다. 대부분 이른바 가장을 중심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도우며 이해하며 살아간다. 가족공동체를 시작으로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공동체, 신에 대한 믿음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공동체, 거주지를 근거로 하는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한다. 이렇듯 공동체는 자신이 선택할 수도 있는 반면 자신의 선택의지가 없이 자연스럽게 소속되기도 한다.

힐러리(George A. Hillery, 1955)는 공동체의 핵심 구성요소로 물리적 공간의 지리적 영역(Territorial Area),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의 연대의식(Common Ties)의 3가지로 정의했다. 첫 번째 요소인 물리적 공간의 지리적 영역은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두 번째 요소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공동체 구성원간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세 번째 요소인 공동의 연대의식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소속감을 말하고 있다.<sup>3)</sup>

쇼와 마틴(Shaw & Martin, 2000)은 공동체활동을 사회민주주의, 구조주의 비판, 시장화, 민주주의 재생의 네 가지 시각으로 보았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3) 독일의 사회학자인 페르디난트 톤니스(Ferdinand tonnies, 2017)는 의지에 따라 공동체를 분류하였는데, 본질의지와 선택의지에 따라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Gesellschaft)의 개념을 정리했다. 그는 취향, 습관 또는 신념에서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형성체를 『공동사회』로, 단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형성된 것을 『이익사회』로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두 가지 대비되는 개념을 볼 수 있다. 친밀하고 감정에 알맞은 사회생활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을 『공동사회』로 보고, 냉정하고 목적결정적인 사회생활의 형태를 『이익사회』로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인 『공동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혈연(血緣), 지연(地緣), 심연(心緣)의 3가지 범주에 따른 전통이나 관습 등 정서적 일체감 속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동사회적 생활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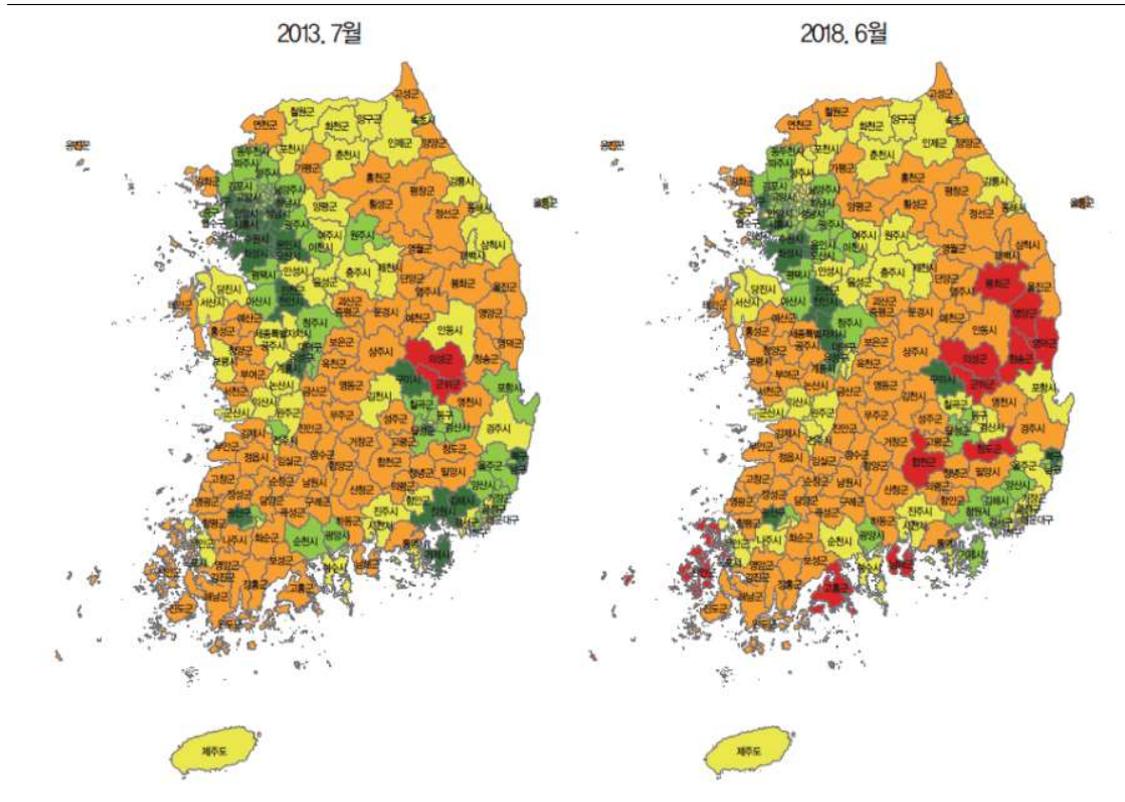
참여와 자유로운 행동, 합리적인 비판을 위한 민주주의 재생은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커뮤니티를 중시하고 시장화나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자유로운 커뮤니티의 건설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을 추구한다(김예란·김용찬·채영길·백영민·김유정, 2017).

현대사회라고 부르는 지금, 현대사회라는 말이 왠지 옛날에 사용하던 단어인 것만 같은 요즘이다. 20세기 초 한 사람이 평생 받아들였던 정보량을 이제는 하루면 습득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을 만큼 우리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채널들을 이용하고 있고, 세상에 없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개인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삶의 변화 속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공동체의 위기이다. 공동체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도 예외는 아니지만 농어촌지역은 더 심각하다. 젊은 층의 도시이주현상,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 등의 문제로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이렇듯 공동체의 위기를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이 바로 지방소멸위험지수이다. 이 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로 인해 행정구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소멸위험지역은 97곳으로 나타났다.<sup>4)</sup> 그 중 소멸위험에 대한 대비가 바로 필요한 곳은 경북 군위·의성을 포함해 40개 지역, 소멸위험진입단계로 나타난 지역으로 제주도 서귀포시도 포함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제정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특별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 지방거점 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 각종 세금감면 및 기초보험료 지원 등이다. 향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동체가 유지되고 나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전국 각 시군구별 지방소멸위험 현황은 다음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4) 출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2> 지방소멸 위험지수<sup>5)</sup> 및 228개 시군구별 지방소멸위험 현황



본 연구의 대상인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언론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이거나 대안적인 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 하나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있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도 하다. 또한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에 책임감과 결속력이 부족하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시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을만들기’ 활동이다. 마을만들기란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보다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과정이다(김기홍, 2014). 즉, 우리 동네, 우리 도시,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공동체 활동이다.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재구성해가는 것이며(이종수, 2015),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마을만들기 활동의

5)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추출하였음

취지이다. 마을만들기 활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주민 간 모임의 공간,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 취미생활의 공유 등 주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마을만들기 활동과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마을만들기 활동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미디어는 상호 보완·협력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공동체 및 공동체 활동에 중심을 두는 공동체미디어와 미디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미디어가 서로 양립한다. 즉, 시민사회의 한 부문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함을 본질로 하는 공동체미디어의 자율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개념과 주류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대안 미디어로서의 정체성에 방점을 갖는 개념이 서로 존재한다.

미디어와 공동체가 개인의 삶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만나는 세상이 열리는 중이다. 사람들의 미디어 경험과 공동체 경험을 모두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김용찬, 2018). 공동체미디어의 다원적 정체성과 함께 공동체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다원적인데 공동체미디어에 참여하는 주체의 시각, 즉 관점에 따라 미디어와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나타난다. 첫째, 공동체의 형성, 생존, 성장, 회복을 위한 기반의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Media for Community), 둘째, 특정 공동체가 직접 만들고 소유하는 공동체의 미디어(Media of Community), 셋째, 미디어가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공동체적 조건을 내세우는 미디어를 위한 공동체(Community for Media), 넷째,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가능해진 새로운 공동체의 유형인 미디어의 공동체(Community of Media), 다섯째, 공동체와 미디어의 대립 상황을 공동체를 주체로 해서 설명하는 미디어에 대립하는 공동체(Community against Media), 여섯째, 공동체의 기반을 방해하거나 공동체적 유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공동체에 대립하는 미디어(Media against Community)의 6가지 관점이다(김용찬, 2018).

공동체와 미디어가 만나는 여섯 가지 관점을 다음 <표 2>에서 정리하였다.

<표 2> 공동체와 미디어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원적 관점

공동체와 미디어간의 관계	내 용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 (Media for Community)	- 공동체의 형성, 생존, 성장, 회복을 위한 기반으로의 미디어
공동체의 미디어 (Media of Community)	- 공동체성의 지각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장치로의 미디어
미디어를 위한 공동체 (Community for Media)	-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공동체적 조건으로의 미디어
미디어의 공동체 (Community of Media)	- 다양한 공동체 경험에 주목한 미디어 환경으로의 미디어
미디어에 대립하는 공동체 (Community against Media)	- 주류미디어에 대한 대안으로의 공동체미디어
공동체에 대립하는 미디어 (Media against Community)	-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의 유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의 미디어

<출처: 김용찬, 2018에서 재구성>

공동체미디어의 초기 모델은 마을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마을미디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퍼블릭 액세스 운동으로 시작되어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지역의 미디어센터 설립운동으로 이어져 <표 3>과 같은 공동체미디어의 개념이 생겨났다.

<표 3> 공동체미디어 개념

특 성	의 미
비영리	-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님 - 비영리적 조직에 의한 운영과 비영리적 활동
공동체 소유	-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한 소유와 통제 - 완전한 액세스와 참여
사회적 서비스 제공	- 공동체의 요구와 이익 반영 - 공동체의 변화 추구

<출처: 최성은, 2010>

또한 참여주체의 대중화는 마을미디어활동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공동체유형에 대한 고민을 낳게 했다. 바로 취향공동체다. 이들 취향공동체는 매우 열성적이며 활동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디어기술의 변화로 개인들의 미디어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취향공동체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sup>6)</sup>

전국적으로 미디어의 다양한 형태인 신문, 잡지, 유튜브, 팟캐스트 등의 공동체미디어가 무려 2백여 개가 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마을미디어 연간보고서를 참조한 이 통계는 4년이 지난 지금 더 많은 공동체미디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짐작한다. 그 예로 인터넷라디오 팟캐스트의 최대 플랫폼인 팟빵<sup>7)</sup>에 등록된 프로그램이 2020년 기준 28,790개 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

2000년 제정된 통합방송법은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법적으로 명시하며 퍼블릭 액세스'개념이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미디어 참여와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운동으로 이어졌다. 2002년 서울의 미디어트를 시작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디어센터들이 설립되었으며,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미디어교육과 활동이 확산되었다. 또한 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함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sup>8)</sup> 지난 2004년 FM주파수를 이용해 라디오방송을 송출하는 소출력 공동체라디오가 시작되었다.

공동체라디오란 '기존 주류 미디어와 다른 제3영역의 방송이다, 공동체라디오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가 운영하는 방송'(Louie Tabing, 2002)을 말한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역할과 발전 모습도 다르다.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 소비자, 인종, 환경, 노동, 문화, 계층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는 대안미디어로서 양적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의미 역시 더욱 넓혀 가고 있다. 전

6) 최성은(2019), 공동체미디어운동 현황과 과제 연속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2019.11.14

7) 인터넷을 기반으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오디오 플랫폼이다.

8) 최성은(2019), 공동체미디어운동 현황과 과제연속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2019.11.14

세계 100여 개국에 1만 개 이상의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운영 중이다. 공동체 라디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라디오 방송으로서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글로벌 현상이 되고 있다(최성은, 2014).

로드리게즈(Rodriguez, 2001)는 공동체미디어는 상업미디어가 모두 담아낼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의 다양한 사회적·정치적·문화적 현상을 담아내는 미디어라고 설명한다. 일종의 대안미디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공동체미디어는 주류미디어가 관심을 두지 않는 주민들 개인의 이야기와 개별 삶의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대안적 미디어의 역할을 넘어 사회를 대변하는 역할, 마을을 기록하는 역할, 시민의식 고취의 역할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미디어를 매개로 마을/동네라는 특정 영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미디어 활동이며, 다양하게 실천되는 공동체 미디어의 유형인 것이다(최성은, 2014).

이렇듯 지역주민이 미디어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고, 운영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공동체라디오다. 그 당시 전국에 8개 사업자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2009년에는 관악, 마포, 성남, 금강, 대구, 영주, 광주 등 7개 지역이 정식사업자로 전환되어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서울을 중심으로 마을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고, 시민의 미디어 참여를 강조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미디어 정책의 갈등과 미디어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동체라디오는 미디어정책과 미디어운동 영역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다. 공동체라디오 관련 정책 과제와 제도는 표류되고 시민들의 참여 욕구와 의지는 주목되지 못하면서 식어져 갔다(최성은, 2019). 이 후 마을미디어의 등장과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관심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더 이상 확장되지 않던 소출력 공동체라디오가 17년 만인 2021년에 전국 20개 사업자(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충북, 경남)를 선정했다. 전국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 현황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전국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 현황<sup>9)</sup>



시민들의 미디어 참여와 접근은 제주지역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제주이민열풍은 빠르게 제주인구를 늘려갔고, 제주 농어촌지역에도 비교적 젊은 인구의 유입이 늘어났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 민박을 하기도 하고, 커피숍을 운영하기도 했다. 평소 조용했던 농어촌마을들은 새로운 여행트렌드를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부동산의 가격은 날로 상승하는데 이르렀다. 이주민 대부분은 자신과 타인의 삶을 구분하여 살아갔고, 이에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제주는 문화의 다양성이 증가했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포용을 촉진하는 사회적 통합이 필요했다.

9) 방송통신위원회(<https://kcc.go.kr/>)에서 추출하였음

## 2. 선행연구 검토

### 1) 언론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연구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살고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 종교 및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자유(自由)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헌법과 사전에 나와 있듯 우리는 자유의 의미를 정확히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자문하게 되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존재하고 행동한다면 올바른 사회일까? 반대로 법과 규제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질서있는 사회가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질적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근대사회의 ‘자유’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던 사상가이다. 밀이 존재했던 19세기도 사회가 여론이나 관습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밀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밀(John Stuart Mill, 2020)은 행복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쾌락을 제공하고,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위를 하든 정당하며, 행복에 반대되는 것은 쾌락의 결핍과 고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행복을 늘리는 것, 즉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것을 ‘효용’이라 일컬으며, 효용(행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을 행동의 규율 지침으로 삼는 것이 공리주의다.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은 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한데 합친 총량이다. 행복의 총량을 최대한 늘리는 ‘최대 행복원리’를 도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저급 쾌락뿐만 아니라 유용한 것, 기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보람찬 것, 자기 희생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쾌락에 질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공리주의가 밀이 주장하는 공리주의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이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개성을 중시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때, 두 번째로는 내가 아닌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개념은 개별성이고 두 번째 개념은 사회성인데, 즉 개별성과 사회성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두 가지의 개념을 추구해야 인간이 행복해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밀은 공리주의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전체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과 동일시하여 진정한 쾌락을 얻을 수 있음을 주장했다. 따라서 인간은 행복과 쾌락을 늘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 방식대로 추구하는 것이 밀이 주장하는 자유의 개념이다. 행복과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자유이자 개별성이다.

밀이 자기관련 행위에서만큼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의 영역은 내면적 의식의 영역, 행동의 영역, 결사의 영역이다.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란 생각, 감정 등 사상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도 포함한다. 행동의 영역은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 일 또는 취미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해 개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결사의 영역이란 다른 사람과의 모임을 결성하고,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이다.

또한 그는 자유의 영역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든 이 세 가지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자유이다.

개인은 다른 사람의 노력에 방해되지 않는 한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 그렇다면 자유를 보장해 주는 곳이 사회이며 언론이다. 밀은 언론자유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지적한다. 첫

째, 만일 우리가 어느 한 의견을 목살한다면 그것은 곧 진리를 목살함일 수도 있다. 둘째, 그릇된 의견일지라도 전반적 진리를 탐구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용납된 의견이 전반적인 진리일지라도 그것이 전반적인 진리라는 점이 강력히 수호되지 않으면 공중은 그것을 이성적인 토대에 세워진 진리라고 보지 않고 편견이라고 보기 쉽다. 넷째, 일반적으로 용납된 의견도 때때로 다른 의견과 논쟁되지 않으면 활력을 잃게 될 것이며 결국 인간행위나 인격에 영향력을 잃게 된다(조맹기, 1995)

결국 밀은 진리가 목살당하지 않고,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침묵보다는 개인의 생각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자유가 필요하며 이러한 생각과 토론의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인류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정선영, 2015).

만족해하는 바보보다는 불만을 품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말한 밀과 같이, 소수가 독점하는 언론이 주는 다양한 의제를 인지할 사이도 없이 받아들이는 뉴미디어 시대에 개인의 목소리로 자유를 표현하는 소크라테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향유해야 할 기본재인 동시에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이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에 UN(United Nations)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선언했다. 냉전의 차가운 대치상황이었던 80년대에는 개인과 사회의 목소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시기였다. 그 시대에서 미디어는 시민들에게 통제와 억압을 강요했고, 힘없는 시민들과 공동체의 자유와 권리는 허용되기 어려웠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1948),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 그리고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등 세 개의 주요 인권 협약(이들을 총칭하여 국제권리헌장이라고 불린다)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많은 협정과 선언문, 판례들에 의해 보충된 다른 주요 인권들이 지닌 내용을 포괄한다. 1)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자신의 문

화에 참여하고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 2)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 3) 공치와 공익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권리, 3) 원저작자의 도덕적, 물질적 이해를 보호할 권리, 4) 부당한 훼손으로부터 자신의 명예를 보호할 권리, 4)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 5)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 6) 자기 결정권과 정부에 참여할 권리, 7) 무상 초등 교육에 관한 권리 및 무상 중등 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관한 권리, 이들 각 권리의 특징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최상위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에다 유럽 인권 재판소와 스리랑카 대법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유네스코 선언 및 유럽연합 위원회 결의문 등 수많은 포럼에서 인정된 바 있는 다양한 독립 미디어에 대한 권리와 미디어 접근권을 추가할 수 있다(황상현, 2009).

커뮤니케이션은 마치 언론의 자유에서와 같이 하나의 자유임에 틀림없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부여받았으며 그것이 훼손되는 한 인간의 생과 사 그리고 존재와 비존재가 크게 영향받는다. 따라서 인간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원초적인 조건의 하나에 해당한다(서정우, 1982).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시민들과 공동체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율적인 사회를 만들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 시대 대한민국이 당면한 정치사회는 대의정치로 일반 국민들을 편 가르고 배제하면서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를 위해 동원할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정치가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그 실천내용과 방식은 시민들로부터 동떨어져 있어 시민의 목소리가 투영된 정치가 실현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사회·정치·문화적 권리이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받아 실현하며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 각종 미디어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실천과 미디어의 사회적, 공공적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권리로서의 마을공동체미디어로 정의하기 어렵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참여주체와 유형의 대중화로 새로운 공동체 유형이 나타나 공동체미디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마을과 공동체, 미디어에 관한 연구

마을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도시에서도 마을이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된다. 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고, 마을이라는 단어의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센터 등 마을과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중간기관을 설립했다. 이러한 현상은 마을공동체의 붕괴와 분열을 막아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마을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을의 개념을 살펴보면 ‘생활의 필요를 해소하고, 함께 궁리하며, 그러다가 협동하면서 맺어지는 이웃들의 관계망’이며, ‘생활의 필요를 가지고 몇몇 주민이 모여 작당하듯 일을 꾸미면서 시작되고, 이런 주민모임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마을이 형성’된다고 보았다(유창복, 2015)

현혜경·염미경(2020)은 ‘마을’은 주민의 삶이 영위되는 일정 영역의 공간·공동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마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므로 그 활동의 주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마을과 지역의 회복은 주민들, 즉 공동체에 있다고 제시했다.

마을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람이 있어서다. 즉 마을에는 사람이 있고, 이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관현(2013)은 일정한 장소에 대한 애착을 느끼며 지속적인 정주의식을 가지는 것을 공동체로 정의하였고, 반명진·김영찬(2016)은 지리적 장소, 이해관계, 언어, 문화 또는 인종적 속성을 공유하는 인간 집단이라 정의하였다. 전대욱·박승규·최인수(2012)는 지역성(locality), 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ion), 공동의 유대(common tie, common bonds)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그 구성원들이

상호 안면성이 높은 상태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이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일체감을 갖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이렇듯 다양하지만 정의를 통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리적 요인과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 요소이다. 즉, 일정한 범위 내의 구성원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적 요인과 인적 요인만으로는 공동체가 정의되지 않는다. 이러한 두 요인들에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과 가치의 공유가 동반되어야 한다. 종합해보면, 공동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구성원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양정화, 2017).

마을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최근 행정학과 미디어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양정화(2017)는 최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동체 복원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있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스토리텔링 기능, 상호작용 촉진 기능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공동체미디어를 통한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며, 마을공동체의 문제해결 역량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희영(2014)은 마을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마을과 주민의 소식을 전하거나 지역의 주요한 이슈를 다루는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마을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 마을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으며,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제시했다.

정용복(2017)은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특성을 파악하였는데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생성과 생산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특정한 가치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주목했다. 공동체 내의 소통의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복원이 중요하며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과제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간 확보, 지자체의 예산지원 등 안정적 활동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진숙·이은비(2014)는 개인주의적 문화가 팽배한 자본주의 사회에 공동체

의식을 복권할 수 있는 매개로 마을미디어가 될 수 있다며, 공동체미디어의 실천양상과 문화정치적 함의에 대해 연구했다. 미디어를 통한 집단적 실천행위를 통해 주류 미디어의 통제와 감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에 의해 억압되었던 시민들이 서로 협동하고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유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민아(2021)는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주민성장의 매개체, 참여와 속의의 공론장, 지역사회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로컬리티의 발현이라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마을의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하는 과정이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활동 과정에서 주민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며 공동체성이 확장해가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마을만들기 활동과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호혜성에 대한 탐구도 있었다. 김은규(2017)는 마을만들기 활동이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어떠한 긍정성을 제공하고 있는지 고찰했다. 그 근거로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을 위한 통로로 작동하고 있으며 주민 협력의 조직화와 네트워킹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마을 문화의 형성과 전파 역할을 수행하여 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마을을 둘러싼 환경들을 기록하는 기록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적인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제시했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운영에서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에 발생하는 제작업무의 과중과 제작 역량의 문제, 운영 비용과 관련한 재정적 문제가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은경(2017)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근활동가의 인건비 지원(현실적 급여수준, 안정적 지원), 공간의 지원(장기임대, 리모델링), 활동가 역량 교육(마을미디어 강사, 오퍼레이터 등), 안정적 송출 시스템(플랫폼, 채널), FM라디오 주파수 확보 등 일회성 사업비의 지원이 아닌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마을과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해졌지만, 지역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미디어 활동가 연구로 제주지역의 공동체미디어 현황을 살펴보고, 구좌읍 공동체미디어를 중심으로 미디어 생산물이 제작되어지는 과정상의 특징 및 미디어 활동가들의 특정한 관심분야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 3.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

#### 1) 운영 현황

제주도는 2010년 이후로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보여 현재 69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주로 이주해 온 이주민의 인구수는 지난 12년간 약 9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은 약 16%로 11만명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제주시내 및 서귀포시내 권역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은 인구수가 적어 필수 생활시설, 교육, 문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 마을공동체미디어에 있어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수 등으로 그 활동과 참여 범위를 규정할 순 없지만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그 지역의 소식, 정보, 사람 등이 중심이 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한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필요한 현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362호, 2019)」을 근거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의 지원 및 관리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미디어를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주민들 스스로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및 영상, 라

디오,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 교육, 제작, 유통의 지원'과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협회의 설치·운영'이다. 조례 제정 이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성장, 유지와 신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발굴해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확장 및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향후 과제로 두 가지가 요구된다. 우선,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을 위한 공간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이슈 발굴 및 공동사업 강화를 위한 마을안팎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위의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행정과 중간조직, 지역사회가 맞물려 앞으로 나아가야만 주민주도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와들랑라디오>, <공동체미디어 제주살래>, <외도마을방송 라이브소울>, <이도이동사람들>, <대정몽생이TV>, <동홍동 행복라디오 곤소리>등 7곳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활동하고 있다. 2013년 '제주살래'의 설립을 시작으로 최근 '이도이동사람들'과 '대정몽생이TV'가 활동하고 있으며 <표4>, <그림4>와 같이 제주도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본 연구의 중심은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와들랑10)라디오>, <공동체미디어 제주살래>, <외도마을방송 라이브소울>이며, 세 단체는 제주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나아가 주민간 소통을 활발히 하여 재미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2016년 마을 기록을 시작으로 올해 6년째를 맞고 있다.

구좌읍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경우, '마을에서 재미나게 놀자'를 꿈꾸며 마을 활동을 함께하던 주민들이 모여 라디오를 시작하였다.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했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녹취하기도 했으며, 동네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도 하며 2016년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와들랑라디오>를 시작했다. <몽생이수다>, <구좌문화방송>, <꽃고딩카페> 등 다양한 토크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약 5년간 경제적인 이익구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제작

10) '와들랑'은 눅거나 앉았다가 갑자기 지르는 큰소리 따위에 놀라서 짹째 일어나는 모양 또는 멍청히 앉아있거나 섰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라서 어딘가로 줄달음치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매주 1회씩 주민들과 라디오를 함께 만들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제작여건이 어려워진 상황과 더불어 <와들랑라디오>는 작은 공간과 부족한 제작비, 인력난 등 산재한 과제를 가지고 있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와들랑 라디오>는 2016년 단체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된 이름이다. 구좌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해보자는 목적으로 몇몇의 사람들이 모였고, 재미있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먼저 2013년 찾아가는 영화관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실외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인 빔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스피커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주민의 영화문화향유권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구좌읍 평대리를 시작으로 한동리, 세화리, 덕천리, 하도리 등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곳이면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주민들은 돗자리와 먹을거리를 준비했고, 다음을 기약하며 즐거워했다.

<공동체미디어 제주살래>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미디어 교육과 생산의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문화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형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되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 프로그램의 제작은 물론 라디오 제작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아동·청소년 진로교육과 체험, 어르신 SNS 미디어활용 교육 등 세대와 계층을 넘어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외도마을방송 라이브소울>은 ‘주민이 주인이고 주인공’이라는 비전을 갖고 관심있는 주민들이 모여 마을미디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후 제주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마을미디어 제작단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외도동 주민들이 모여 마을에 대한 관심으로 2015년 설립되어 <외도마을방송 라이브소울>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의 소통과 정보 교류, 주민들의 꿈과 끼를 채워주는 동네미디어, 마을 역사와 문화를 기록, 보존하는 아카이빙을 목적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표 4>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현황

운영주체	활동명	미디어유형	설립일	활동지역
제주마을소도리 문화연구소	와들랑	라디오 잡지	2015. 12.	제주시 구좌읍
외도동마을미디어 추진위원회	라이브소울	라디오 영상	2015. 7.	제주시 외도동
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	신문	2017. 12	제주시 우도면
이도이동 추진위원회	이도이동사람들	라디오 잡지	2020. 6.	제주시 이도이동
서귀포귀농귀촌 협동조합	제주살래	라디오 영상	2013. 4.	제주시 삼도동 서귀포시 남원읍
대정읍 추진위원회	대정몽생이TV	영상	2020. 7	서귀포시 대정읍
동홍동 추진위원회	곤소리	라디오	2017. 5	서귀포시 동홍동

<그림 4>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지도11)



11)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https://www.ofjeju.kr/>)에서 추출하였음

## 2) 프로그램 내용

<와들랑 라디오>는 소통의 장을 만들며 시작되었다. 서로 대면하여 나와 이웃의 이야기를 전해듣는 것,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듯이 어르신들의 옛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 지역의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등을 실천하였다.

<와들랑 라디오>는 2016년 8월 <몽생이수다>를 시작으로 현재 <나와 당신의 제주>에 이르기까지 120개가 넘는 방송을 제작했다. <몽생이수다>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삼촌이 마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제주어를 섞어 구수하게 풀어내는 방송이다. <구좌문화방송>은 이주 성악가의 진행으로 구좌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으로 구좌합창단, 작곡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인과의 대화로 진행되었다. <구좌줍마>와 <구좌파파>는 마을에 살고 있는 엄마들과 아빠들의 주축으로 아이들 육아, 가정생활, 에피소드 등을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꽃고딩카페>는 구좌읍 세화고등학교 4명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고민 등을 나누며 서로 보듬어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고등학생으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웠지만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성실히 방송에 임해주었다. 이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작되었고, 분량은 자유분량으로 30분에서 60분 정도로 인터넷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와들랑 라디오> 프로그램의 주제는 육아, 환경, 교육,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제작되었고, 제작을 위해 참여한 진행자와 출연자는 100여명 정도이다.

제작비는 도 지원사업을 통해 일정부분 지원받았으며 대부분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2016년부터 진행된 프로그램들의 제작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5> 와들랑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현황

활동기간	프로그램 명	방송횟수	고정 참여자	비고정 참여자
2016. 8 ~	몽생이수다	2회	4명	1명
	구좌문화방송	2회	3명	30명
	파란10대들의 이야기	1회	7명	
2017.	몽생이수다	2회	4명	3명
	구좌문화방송	2회	3명	12명
	사봉이들의 빠리한토크	1회	6명	
	제주에서 뭐하맨?	2회	6명	
	구좌줌마	3회	4명	
	와들랑라디오 공개방송	6회	3명	19명
	꽃고딩 카페	1회	5명	
그것이 궁금하다	3회	7명		
2018.	구좌줌마	14회	4명	10명
	구좌파파	6회	4명	5명
	꽃고딩카페	8회	5명	1명
	제주에서 뭐하맨?	4회	6명	2명
	슈퍼스타 J(제주)	8회	3명	5명
	제주학교자랑	2회	2명	12명
2019.	꽃고딩카페	11회	5명	
	미세스제주라디오	3회	3명	2명
	나는 해녀다	8회	5명	1명
	와들랑라디오공개방송	1회	2명	1명
2020. ~ 현재	꽃고딩카페	1회	5명	
	와들랑라디오 공개방송	1회	6명	
	나와당신의제주	32회	3명	15명
합계	15개	124회	60명	119명

<공동체미디어 제주살래>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어울렁더울렁>은 제주 정착주민과 마을의 스타DJ 신대장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제주살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만들어가는 방송이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방송으로 진행됐던 <마을이 묻는다>는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춘 특별방송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도의원 및 도지사에 출마를 밝힌 후보들은 각자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한 프로그램이다. <제주생활탐구>는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제주를 위해 시민들이 해결 가능한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해보는 생활실험 프로젝트 방송으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와 협력하여 팟캐스트와 유튜브가 동시 제작됐던 프로그램이다. 이렇듯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발굴해 원도심의 창의적인 콘텐츠로 성장·발전시키고 새로운 지역공동체 회복과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만들어 가는 마을방송이다.

<외도마을방송 라이브소울>은 팟캐스트와 유튜브 동시제작을 원칙하에 마을의 소통과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언론 인사이트>, <외도 소소리>, <책이수다>, <외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등을 제작하고 있다. <언론 인사이트>는 제주에서 기사화된 외도 마을의 이야기를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여 팩트 체크를 하는 방송이다. <외도 소소리>는 마을의 소소한 이슈들에 대해 진행자와 참여자가 소통하는 방식의 방송으로 월 1회 제작되며 현재까지 총 27회의 방송을 제작하여 송출하였다. <책이수다>는 매월 한 권의 추천도서를 읽고 좋은 글귀와 독후감을 진행자의 방식으로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으며, <외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외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마을과 사람을 기록하는 아카이빙의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의 실천 과정을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미디어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해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논하고, 미디어를 제작하는 일은 몇 번의 교육과 장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해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속될 수 있는 전략과 방안, 나아가 개인의 목소리가 점차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 연구문제 1 -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의 시작과 운영 방식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에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시작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 공동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연구문제 1에서 검토하였다.

#### 연구문제 2 -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행위와 역할

마을공동체미디어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마을주민들의 소통으로 지역의 정보와 소식을 담아낸다. 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의 행동과 방식을 살펴보고,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연구문제 2에서 알아보았다.

#### 연구문제 3 -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위한 과정과 향후 과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핵심 현상은 지속가능성이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 활동욕구는 마을주민들의 관계를 기반으로 마을에서의 의미있는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다. 이를 위해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연구문제 3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관한 연구방법으로는 제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곳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이며, 직접 마을미디어 현장을 방문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구조화된 인터뷰, 반구조화된 인터뷰, 비구조화된 인터뷰로 구분된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자가 질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연구 대상자와 대화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해가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록 대화의 내용이 대상자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더라도 종합적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용숙, 1998).

이를 위해 실험과 서베이를 통한 양적 수치의 접근보다는 심층 인터뷰를 적극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제로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중 기간이 가장 긴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운영 기간은 3~4년 남짓이며,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미디어들은 운영 기간이 1~2년이 된 신생 미디어이거나 운영 기간이 5년도 채 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공통적인 기준을 추출하여 분석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실험연구를 포함한 양적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심층 인터뷰만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는 ‘심층적’이기 힘든데, 그것은 성공적인 인터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자의 삶의 맥락에 대한 이해와 정

보 제공자와의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참여 관찰이 전제되어야 하며(윤택림, 2004),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토론을 하게 하는 표적 집단 면접법이 개개의 참여자가 주어진 질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심층 인터뷰는 그 빈틈을 채우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남지윤, 2008). 또한 인터뷰를 실시하는 이유는 기존의 문헌을 통해서만 파악하기 힘든 정성적 요소들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포함한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의 경우 주민 즉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활동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것은 직접 관찰하거나 활동한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지 않으면 그 양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터뷰를 통해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현상을 파악하고, 지속가능을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3명을 대상으로 정해 2022년 4월 한 달 간 섭외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효율성을 위해 미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휴대전화로 설명하였고, 일정 시간 뒤에 따로 약속을 정해 1~2시간 정도씩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각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실이었으며 연구의 정확성과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양해를 구해 휴대전화 녹음앱을 사용하여 녹취하였다.

### 3. 연구대상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곳은 7개 사업자가 있으며 대부분 대표 1명과 비상근 근무자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의 실천 과정을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미디어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해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5년 이상 활동 및 운영을 해 온 3개 사업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의 대상이 3개의 사업자로 한정된 것은 제주지역의 한계성도 있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운영

경험과 경력이 비슷한 사업자의 운영 현황과 향후 목표를 비교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각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제작 여건 및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설립 5년 미만의 마을공동체미디어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가능한 배제하였음을 밝힌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3개의 사업자는 다음 <표 7>과 같이 구좌읍 제주마을소도리문화연구소가 운영하는 <와들랑라디오>, 외도동 마을미디어 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외도마을방송 라이브소울>, 서귀포 귀농귀촌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체미디어 제주살래>이다.

<표 6> 연구대상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자

구분	지역	유형	운영자	성별	나이
응답자 A	제주시 구좌읍	공동체라디오	최00	여	42
응답자 B	제주시 외도동	공동체라디오	강00	남	63
응답자 C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시 삼도동	공동체라디오	안00	남	52

인터뷰 응답자 A는 42세의 제주 이주 여성이다. 대학에서 언론매체학을 전공하여 케이블TV에서 뉴스, 경제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프로듀서이다. 결혼과 출산 이후 제주로 이주해 2015년에 설립된 법인의 와들랑라디오 PD를 하고 있으며 개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와들랑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원고작성부터 진행, 기술, 편집이 모두 가능하며 게스트 섭외도 맡아서 하고 있다.

인터뷰 응답자 B는 63세의 제주 토박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통신 회사에 재직하였으며 주로 전산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 평소 인터넷 방송과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 외도동 마을택지개발로 많은 이주민들이 오면서 소통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제작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인터뷰 응답자 C는 52세의 제주 이주 남성이다.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하여 영화 제작사에서 연출부로 기획, 연출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해왔다. 평소 미디어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제주 이주 후 서귀포시의 귀농귀촌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는 남원읍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주살래의 대표와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는 각 지역 공동체미디어의 미디어 활동가이며, 필요에 따라 참여 주민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 연구의 1차 자료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리된 기록과 녹음을 바탕으로 했으며, 이어 2차 자료로는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의 인터넷 자료와 매체 플랫폼(유튜브, 팟빵 등)을 검토했다.

## IV. 연구결과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녹음기록물과 메모 등 질적 자료들에 대한 내용 분석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미디어 활동가들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시작배경과 운영방식, 마을공동체미디어 소통행위와 역할, 마을공동체미디어 현재와 향후 과제 등 세 개의 범주에 따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은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와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알아본다.

###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의 시작과 운영방식

#### 1)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그렇듯, 한 분야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사람이 많지 않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를 주저하는 주민들의 특성상 제주 읍·면 지역에서의 활동은 더더욱 어렵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어떻게 생겨났고, 활동가들은 평소에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디어 장비들을 구축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았다.

“10여년 전에 제주로 이주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꿈꾸던 시골생활이어서 좋았는데 3년쯤 지나다 보니 나에 대한 정체성에 모호함을 느꼈고, 내 이웃들이 궁금했고, 친구들도 사귀고 싶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서울 시에서 진행하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됐고 제주에도 이런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제주도의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이었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와들랑라디오가 됐어요.” (응답자 A)

“개인적으로는 원래 인터넷방송, 시스템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었고 마을이 택지 개발이 되면서 이주민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된 거지. 그러니까 선주민하고 이주민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 그러니까 오해도 많고 소문도 많고 맨날 뭐 했더라가 엄청 많더라고 그리고 14년도에 제주도의회 갔는데 내년엔 마을미디어 시범 사업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응답자 B)

“제주에 2011년도에 와서 협동조합과 마을 기업을 2013년도에 만들고 그 마을의 공간 안에서 감귤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공동체관련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조합원 구성원들의 어떤 욕구나 관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2015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마침 ‘시시콜콜’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주민들과 마을 안에서 ‘우리가 마을 방송국을 한번 해보자’는 자연스러운 관심이 생겼어요.” (응답자 C)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은 대부분 과거에 미디어와 방송, 통신 등 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뷰에 응한 미디어 활동가 모두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미디어를 통한 소통, 도내·외 행정적 지원이 실천 배경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도 마을미디어 시범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시콜콜 사업> 등의 지원사업들에 활동가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했고, 선정되면서 마을 안에서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끌게 되었다. 또한 활동가들은 제주지역의 급격한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자신이 직접 겪었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지역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도구로 라디오와 신문 등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도 대부분 위에서 언급한 제주지역의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의 목소리를 내가 직접 내보겠다’ 라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로 살펴보면, 공동체와 미디어를 보는 관점에

서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시작은 특정 공동체가 직접 만들고 소유하는 방식인 공동체의 미디어(Media of Community)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 과정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미디어활동가들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진정한 마을공동체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게된다. 참여하는 주민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통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한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진행자와 게스트, 기술인력 등이 제작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뿐만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고 즐기는데까지 나아간다.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한 미디어 활동가들의 노력을 알아보았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해야할지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가깝게 지내는 이웃에게 얘기해서 하자고 한게 시작이었어요. 친구의 친구, 지인의 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둘 모이게 되면서 5명이 같이 하게 됐어요. 서로 연령도 비슷했고, 육아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통점도 있어서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응답자 A)

“참여를 위한 섭외를 해보니까 공고를 내고 뭐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안와요. 사실 프로그램에 맞는 진행자랑 게스트를 섭외해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참여할 사람을 우리가 전화해서 막 찾고 그래요. 사실 제주도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성향이 아니거든요. 그건 오랜 역사적 전통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보통 자기 얘기를 스스로 없이 얘기하거나 얘기해 줄 사람이 잘 없어요.”(응답자 B)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미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누구나 다 말하고 싶어 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을 세대와 계층, 직업, 성별 이런 거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응답자 C)

앞서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제시한 자기관련 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상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일 또는 취미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해 개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주민참여에 대한 미디어 활동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라는 것이다. 주민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속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문화적, 환경적 특수성과 요인으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자신의 일이 아니면 관망하는 태도 등이 주민 참여로 이끌어 내기까지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관점이 아직은 공동체활동보다는 미디어, 언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육아, 역사, 문화 등 공통의 주제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 주변의 지인을 활용하여 진행자, 게스트 등 역할을 분배해 진행하였고,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일 자체가 수익이 생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라든가 강제성이 없는 일이에요. 서로가 바쁜시간을 쪼개서 참여하는 것이고,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시간을 잡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처음엔 자리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시간을 내서 대본 준비를 더하고, 후반작업 같은거를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응답자 A)

“전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실천 행동 자체가 공동체활성화인거죠. 사람들간의 이야기가 커뮤니티를 이루는 사람들간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많은 얘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 보면 활성화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얘기를 매스미디어에서 안 해주니까 우리끼리 해보자는 얘기인거죠. .”(응답자 B)

“제주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유지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가 이윤을 남기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주도 내의 사업, 중앙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의 사업들 또는 민간 기업들의 사회공헌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받는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거죠. 마을공동체미디어에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게 마을공동체미디어를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인 거죠.” (응답자 C)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유지와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면 주민들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궁금했다. 오늘날 학연, 혈연, 지연을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점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취향의 일치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도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먼저 <응답자 B>는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주민들의 이야기들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마을공동체미디어가 해결해줄 수 있으며,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어 공동체가 유지되고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A>는 주민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대본작성, 편집, 기술적인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해결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가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며, 자연스러운 식사자리를 하며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말했다. <응답자 C>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필요한 2가지로 예산과 교육을 언급했다. 예산의 지원과 교육의 지속으로 점점 빨라지는 미디어환경과 변화에 적응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가 형성되고 계속될 수 있다며 교육의 내용도 다양해지고, 트렌드의 변화가 빠르다 보니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참여자들과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속을 위한 활동가들의 행위와 역할

### 1) 마을 아카이빙

마을공동체미디어는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들이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마을과 사람을 이어준다. 또한 주민들이 서로 협동하고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주민들의 연대와 협동 문화로 공동체성이 확장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사회적 매체로서 실천하고 있는 마을과 사람을 기록하는 아카이빙, 주민 소통의 공간,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한 주민참여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처음 와들랑라디오는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는 것을 하게 됐는데요. ‘몽생이 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지역의 선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야기의 내용들이 제주도 중에서도 구좌읍 지역의 자연과 환경, 문화 등에 대한 주제들이었어요. 또 이주민들은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등을 듣게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후세들에게는 의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아카

이빙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응답자 A)

“마을 아카이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정관에 들어가 있어요. 아카이빙은 내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분야 꼭 해보고 싶은 분야 중 하나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 돌아보면 알겠지만 기록 문화라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이런 옛날 자료를 관리하고 기록할 수 있는 게 공동체 미디어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공동체미디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답자 B)

“제주살래의 경우 제주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제주도의 귀농 귀촌인데 우리 마을에 귀농 귀촌한 사람들의 제주살이에 대한 아카이빙을 진행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겪는 어려움 또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적응기, 아이를 낳은 사람의 육아 일기 같은 양육기 이런 것들을 팟캐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그게 아카이빙이 되는 거죠. 주민들이 나와서 개인적인 이야기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든 어떠한 이야기든 그 자체로 아카이빙인 거죠. 평생 남는 거니까요.” (응답자 C)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은 실천과정에서의 마을과 사람을 기록하는 아카이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을의 사라져가는 역사를 기록하거나 어르신들의 구술을 채록하여 문화콘텐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제주살이 이야기 등 지금 제주를 기록하여 후세들에게 남겨주는 일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역할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마을과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청취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긍정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마을과 주민의 소식을 전달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마을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 마을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으며, 마을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소통을 통한 주민 자치의 실현

현대인들은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의 한 방향 전달체계를 넘어 인터넷 환경에 따른 뉴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 뉴미디어 시대 이전에는 서로 간 소통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군가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누구든지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 메시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양 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소통의 측면에서 보면 마을공동체미디어는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통방식의 공간이다. 미디어 활동가들은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처음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는 식으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들랑라디오가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참여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실천하다 보니 프로그램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인근 마을에서도 우리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발전 계획이나 공지사항들을 와들랑라디오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도 했어요.” (응답자 A)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시작과 참여 자체가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때나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받을 때 이미 인사나누고 하는 것이 소통하는 거고 그 마을공동체미디어 마을 방송국이라는 그 공간에 오는 것 자체가 이미 소통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망을 넓히는 게 물론 이제 방송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소통이 있지만 그 이전에 마을 방송국은 모여서 함께 교육을 받고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역할을 나누고 이 과정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거죠.” (응답자 C)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미디어에 참여하는 순간부터가 소통의 시작이었다. 공간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공간에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의견을 말 하는 것부터가 소통은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활동가들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콘텐츠로 만들어 내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어 또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꺼이 홍보 역할도 해주었고, 자주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끼리의 아지트 역할도 했다. 또한 소통의 정량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익구조의 방송국이 아닌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청취율, 조회수 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사회적인 관계망을 넓혀 대안의 미디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받아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실천하고 미디어의 사회적, 공공적 활용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와들랑 라디오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라디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선주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이주민들은 작은 어려움도 함께 나눌 이웃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가 높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주도 적응에 어려웠던 것 예를 들면 주차문제, 소음문제 등 개인의 일에서 시작해서 좀 더 확장된 제주 현안이나 정책, 예를 들면 제2공항이나 비자림로 확장과 같은 것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기능이라고 생각해요”(응답자 A)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치 활성화가 지금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아직 하지 않은 기능이에요. 지금까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단순히 여가 활동 취미 관심의 영역에서 머물렀다면 마을 공동체 미디어 시즌 2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에 방점을 찍지 않으

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치분권, 주민자치회 이런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 안에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 기능을 반드시 탑재해야만이 마을공동체미디어도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거죠. 평소 일상 생활 안에서 어떤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그것들을 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 (응답자 C)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향점은 참여와 소통을 넘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주민들 간 취미를 공유하는 공간,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공간,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인 제1섹터(1st Sector)와 민간부문인 제2섹터(2nd Sector)의 공통영역인 제3섹터(3rd Sector)로서의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정립하여 기본재와 기본권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의 자유주의적 권리를 넘어 의견을 개진하고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권리임을 말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목표인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상호 소통의 측면에서 보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활성화는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이다. 사회적 참여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향유해야 할 기본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방식은 시민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다. 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은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미디어라는 공론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을공동체미디어가 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말한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그들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인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받고 실현하며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 각종 미디어들을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버마스(Habermas)가 정의한 공론장을 형성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주민들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과정과 향후 과제

#### 1)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현재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일반적인 형태의 방송국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방송국 시스템은 스튜디오와 부조정실, 편집실, 분장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며 무엇보다 전파를 통한 방송의 송출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라디오 방송 시스템은 작은 공간에서도 마이크와 오디오 믹서, 편집용 컴퓨터만 있으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송출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송수신소가 필요없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을 위한 방송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는 물리적 공간, 미디어 제작 장비 등이며 소프트웨어는 사람, 프로그램, 교육 등으로 분류가 된다. 이 두 가지 모두 존재해야만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원활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자는 어떠한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처음에는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구입한 장비를 들고 집을 찾아다니면서 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공간이 필요했고, 마을에서 공간을 임대받아서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면서 사람의 참여도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늘어나게 됐죠. 프로그램 제작은 현재 혼자 하고 있어요. 원래는 사람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서 하려고 시도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았고, 사람들 시간 내기도 어려워서 주로 저 혼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와들랑라디오 송출 채널은 팟빵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유튜브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채널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어요.” (응답자 A)

“예전에 그 지원 사업 할 때 내가 소음대책위원장 할 때 그때 소음 지역의

마을에 조금씩 지원해 준 돈이 있었거든요, 그 것으로 장비들을 조금 구입했어요. 원래 우리 명칭은 외도동 마을미디어 추진위원회로 시작했어요. 외도 마을방송 라이브 브랜드를 써서 단체명을 마을미디어 연구소로 바꿨어요. 제작은 마을미디어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여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완성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는데 팟빵과 유튜브 채널로 방송을 하고 인스타 등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응답자 B)

“제주살래 운영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주민들이 있고 그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받은 주민 강사가 있는 거죠. 주민 강사도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자기가 해보니 자기가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재주가 있어서 이제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교육 강사가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채널은 기본적으로 팟캐스트 채널이 있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작 인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프로듀서는 우리가 이제 주민 전체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주민 누구나 프로듀서가 될 수 있는거죠. 진행을 하는 사람은 따로 두는 거고, 카메라나 편집같은 기술은 모두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방송제작을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결국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게 제 생각이예요.” (응답자 C)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에 있어 미디어 활동가들은 모두 기초 인프라의 지원을 행정에서 보조 받았다. 오디오믹서, 마이크, 컴퓨터 등 제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미디어장비들을 지원받았고 진행에 필요한 악세서리 등은 개인 또는 공동체에서 구입하였다. 또한 공통된 키워드로는 ‘사람’이 있었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기획, 제작, 홍보 등 모든 업무들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도맡아 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인

적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관심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킴으로써 활동가들의 영역을 조금씩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행자가 직접 제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제작된 콘텐츠는 대부분 팟빵이나 유튜브 등 미디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송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 방송국과의 협력을 통한 플랫폼 구축이나 지역의 고유한 통합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며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제작하는 콘텐츠와 지역언론 프로그램과의 통합 편성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 2) 발전과 지속을 위한 과제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발전되어야 한다. 주민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자율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듯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전국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만큼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정부와 지방행정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디어 활동가와 참여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미디어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실제로 와들랑 라디오를 스쳐 지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참여했다가 해보니 제작도 어렵고 시간내기도 어려워서 계속 되기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참여가 계속되려면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보상, 즉 만족감, 성취감, 재미 등이 있어야 되는거죠.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활동가들도 보상이 필요하죠.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냈다거나, 많은 청취자들이 들었다거나 하는 정신적인 보상을 통해서 활동가들과 참여자들의 의지가 지속적인 제작이 되는 것이 와들랑라디오가 발전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응답자 A)

“저는 외도 마을의 어떤 소통의 중심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송이 되길 바래요.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서로 교류도 하면서 하나의 문화 생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카이빙을 해서 마을의 역사 문화의 어떤 중심체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응답자 B)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주살래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는데 대표작이 아직 없어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동작 fm은 작년에 ‘전지적 아이시점’이라고 초등학생 애들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거기서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마을 방송국도 대표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그걸 보고 주민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우리 아이도 가서 저걸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기획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에도 전체적으로 반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잘 안되는 이유가 대표작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 살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숙제죠.” (응답자 C)

대부분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은 거시적인 의미에서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으나 각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들을 확인하기 위해 세부적인 발전목표를 들어보았다. <응답자 B>는 마을의 아젠다를 설정하여 주민들의 토론으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간다는 있어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외도마을공동체미디어의 발전목표임을 강조했다. <응답자 A>는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만족감, 성취감, 재미와 같은 심리적인 보상이며 이를 충족하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응답자 C>는 제주지

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대표 프로그램의 부재라고 강조했다.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잘 만들어진 대표 프로그램이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간접효과가 있으며, 그러한 대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남원읍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숙제라고 말했다. 연구결과와 같이 각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내부 역량이 강화되어야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부 역량의 발전과 더불어 외부환경도 뒷받침되어야만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속할 수 있다.

주민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자율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듯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전국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만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정부와 지방행정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디어 활동가와 참여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미디어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참여자 모두가 단순히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단순히 기술과 시간이 있는 몇 명만 참여하는 것은 개인방송이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떤 접점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제작진이 있어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참여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작진에게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하고 참여자들에게도 소위 교통비라도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자연스럽게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자 A)

“먼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운영 주체는 이 마을에 있는 주민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중심이 돼야 그 사람들만의 얘기

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어떠한 제약이 없는 지원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따르는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간섭을 하면 안 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그리고 음악의 저작권 문제라든지 신문기사나 책의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요. 법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자 B)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얘기해보면 마을공동체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제도 안에서 법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미디어 기본법 그러니까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기본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 기본법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7개 시도 광역 안에서 그 상위법에 근거한 지방법 안에 제도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 제도 안에서 예산이 수립되어지고 이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미디어로 소통하는 게 가장 편리한 방식이니까 시민들이 누구나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죠.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어느 단위에서든 이것은 지체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민의 요구는 이미 팽배해요. 시민들한테 이걸 관심 가져주세요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시민은 이미 준비돼 있어요.” (응답자 C)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속하기 위한 과제들은 산재해 있었다. 콘텐츠의 제작에 필요한 부분부터 법·제도적인 정비의 부분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음악방송의 경우 청취자들에게 음원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 저작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행정의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도 강조하였다. 미디어 제작에 있어서 인력의 분리를 통한 효율적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 실질적인 제작진이 있어야만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며, 제작진들에게는 그에 맞는 인건비가 보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상위법 즉 마을공동체미디어

어 기본법의 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됨을 재차 강조했다. 법·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지금 행정의 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일회성 지원으로는 지속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활용, 주민참여예산의 활용 등을 통해 프로젝트성 사업의 지원이 아닌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지원 이후에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네트워킹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참여주민의 의견 수렴, 지속적인 관리현장을 밀착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설립이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각 미디어 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인터뷰를 통해 응답해 주었고,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정부와 지방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및 함의

### 1. 연구 결과 및 요약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활성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전반적인 기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는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실질적인 공동체활성화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어떠한 과제가 필요한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사례 분석을 통해 고찰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의 시작과 과정에 관해서 제주지역의 미디어 활동가들은 대부분 미디어 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방송국에서 직접 프로그램 제작을 했던 피디 출신의 <응답자 A>는 10여년전에 제주로 이주하여 <와들랑라디오>라는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고가 없는 제주로 이주했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고 싶었고, 무엇보다 과거 방송피디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아를 찾아가길 원했다.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마을라디오를 듣게 되었고, 서울시 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제주도 지원사업에 신청한 것이 와들랑라디오의 시작이 되었다. 프로그램 제작에는 자신 있었지만 라디오 프로그램 특성상 진행자와 게스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 지인의 지인을 통해 5명이 모여 마을역사, 육아, 제주생활 등을 주제로 라디오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는 참여자들에게 강제성과 책임감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참여자들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 <응답자 A>는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 디렉터의 역할을 넘어 섭외, 대본, 구성, 기술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기업의 전산관련 업무를 맡아 했던 <응답자 B>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주민으로 제주 이주열풍이 불었던 시대를 직접 경험했다. <응답자 B>가 살고 있는 외도동은 제주 시내와 가까워 지역개발이 이루어졌고,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갈

등이 심했던 지역이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 간 소통을 위해 <외도 마을방송 라이브소울>이라는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함께 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지인을 참여시켜 라디오를 제작했는데 그마저도 제주 사람들의 특성상 나서서 이야기하는걸 싫어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터놓고 이야기할 때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으로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학 전공자이지만 전공과 다른 사회생활을 했던 <응답자 C>는 영화 제작사에서 기획, 연출 관련 업무를 했었다. 10여년전 제주에 이주한 <응답자 C>는 남원읍에 거주하면서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체관련 사업들을 발굴하던 중 마을방송국 모델을 가져와 <공동체미디어 제주살래>라는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며, 시대의 흐름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공동체 형성에 있어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적절한 매개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시작 배경은 대부분의 미디어 활동가들의 응답을 확인한 결과 대동소이했다.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랐다.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역과 주민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미디어 활동가 모두가 같은 응답을 하였으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속을 위한 활동가들의 행위와 역할에서 각 미디어 활동가들은 그에 따른 행위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범주는 서로 연결되어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미디어 활동가들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능과 역할이 각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아카이빙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 중요한 역할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라져가는 제주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마을공동체라디오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

는 주제가 바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이기도 했으며 제주에 정착하여 자리잡기 위한 정착기,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서의 양육기와 같은 기록물을 제작하는 것도 아카이빙의 일환이었다.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주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미디어가 할 수 없는 대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응답자가 공감하였으며,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소통의 시작임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참여해 제작한 <꽃고딩카페>의 경우는 대학입시로 바쁜 친구들이 사적인 만남이 어려워지자 친구들과의 수다의 장을 마을공동체라디오로 정하여 제작을 진행했고, 마을의 미래계획이나 공지사항 등을 마을라디오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린 점이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순기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프로그램 콘텐츠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취하는지의 정량적 수치보다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인 주민들의 참여가 소통의 시작이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통영역인 제3섹터로서의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기능인 주민 자치 활성화의 역할은 앞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기본권인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의 권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마을공동체미디어인 것이다. 대안 미디어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기본법이 제정되어 보다 많은 주민들이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가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운영과 향후과제에 대해 제주지역의 미디어 활동가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내었다. 먼저 미디어 활동가들이 속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운영 시스템을 확인했고, 각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발전하기 위한 목표를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외부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와들랑라디오> 운

영의 시작은 미디어 활동가가 라디오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참여자들의 집과 사업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터였다. 미디어 활동가 1인이 프로그램 기획과 섭외 편집과 콘텐츠 업로드 등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했으며 지금은 라디오 홍보도 하고 있었다. 외롭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더 많은 청취자들의 관심과 행정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생산자와 참여자 모두의 제작의지가 제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외도라이브소울>의 경우는 외도동 마을주민들이 모여 마을미디어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그 모임을 시작으로 현재도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지속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방식은 타 마을공동체미디어와 유사했으며, <외도라이브소울>이 마을 주민 간 소통의 중심으로서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음악, 책 등 미디어의 저작권을 법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살래>는 라디오에 관심있는 주민들의 미디어 교육을 통한 선순환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운영·유지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간판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제주지역의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알리는데 있어 필요한 역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기본권인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보장을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기본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주민들 누구나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관한 연구로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시작 배경과 운영 과정에서의 실천 내용, 그리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적 운영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미디어 활동가들과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미디어 활동가들은 지역도 다르고, 운영을 하게된 배경과 운영내용도 상이했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가 현 시대에 필요한 미디어의 한 도구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역과 마을의 공동체가 활성화 되는데 있어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속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역과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공동체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함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생산자와 참여자 몇 명이 활동하는 하나의 단체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통해 지역과 마을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사회의 관계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통과 관계의 복원, 참여와 협력,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중심 허브의 역할을 하였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3섹터인 마을공동체미디어가 해소할 수 있는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와 소통으로 강화된 시민사회를 이루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처럼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기존 미디어와 차별된 대안미디어, 제3의 미디어로서 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마을공동체미디어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2019년 9월 전국의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모여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이하 전마미)’가 결성되었다. <전마미>는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 간의 교류와 소통, 협력을 위한 활동에서부터 마을공동체미디어 연구 및 정책활동,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과 네트워크 형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활

동하고 있다. 송덕호 <전마미> 공동대표는 ‘시민과 공동체가 소통의 주체로, 미디어의 주체로 시민의 민주적인 참여와 소유를 통해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여 ‘고립과 단절, 배제라는 현대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희망’을 품기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전마미>가 제안한 마을공동체미디어 4대 정책 과제로는 첫째, ‘시민의 미디어기본권 보장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법제화’로 모든 시민들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 미디어 법체계를 혁신하는 통합미디어법의 추진. 둘째,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명시. 셋째, ‘시민 참여 기반의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 신설’로 미디어 정책 입안 및 결정 과정에 시민과 공동체의 참여 강화. 넷째, ‘디지털 환경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확산 지원’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 및 미디어 융합과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구조 개선이다.

이처럼 마을공동체미디어 실천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은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전국의 공동체라디오 사업자가 늘어날수록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주’라는 지역의 한계성이 있긴 하지만 구좌읍, 남원읍, 외동동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동가들은 그 특성이 다양했다. 미디어 활동가의 관심 주제, 특성 등에 따라 운영과 제작 부분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동가들 중 3명만 인터뷰 했다는 것은 본 연구가 생산자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둘째,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역과 마을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들이나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등장 배경과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술하였지만 공동체 활성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와 정량적 자료의 보완을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정책 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진숙·이은비 (2014). ‘서울마을미디어’의 다중 실천과 문화정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개념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5권 3호, 143-185.
- 김기홍 (2014). 마을의 재발견. 서울: 올림.
- 김예란·김용찬·채영길·백영민·김유정 (2017). 공동체는 발명되어야 한다 : 서울시 마을미디어 형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Vol.81, 1호, 40~74.
- 김용찬 (2018). 미디어와 공동체. 서울: 컬처룩.
- 김은규 (2003). 미디어와 시민참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7).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호혜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Vol.0, 47호, 5~45.
- 김희영 (2014). 마을과 사람을 잇는 마을미디어. <국토>, 통권 398호, 92~100.
- 나미수 (2015).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 방법론. 서울: 컬처룩.
- 남지윤 (2008). TV솔루션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진의 인식와 관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정미 (2020). 유튜브 저널리즘과 공론장(Public Sphere)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보>, Vol.19, 제1호, 217~246.
- 박홍원 (2005). 미디어와 민주주의 : 공론장 개념과 그 함의. <언론학연구>, Vol.9, 제1호, 65~68.
- 반명진·김영찬 (2016). 공동체라디오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장연구 : 마포FM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Vol.78, 제4호, 79~115.
- 서정우 (1982).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관훈저널>, Vol.-, 35호, 44~59.

- 양정화 (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역할 : 마포 공동체라디오 마포FM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관현 (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Vol.26, 제1호, 53~87.
- 유창복 (2015). 생각의 문 : 묻고, 듣다 ; 저성장 시대, 왜 마을인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Vol.50, 562호, 34~35.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용숙 (1998). 교육에서의 질적연구 :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이종수 (2015). 공동체, 유토피아에서 마을 만들기까지. 서울: 박영사.
- 이희랑·김희영 (2017). 마을미디어 실천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서울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근거이론을 통한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Vol.81, 제1호, 75~121.
- 임민아 (2021). 지역사회 성장을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관한 연구. 성 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대욱·박승규·최인수 (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467, 1~262.
- 정용복 (2017). 마을공동체미디어 생산자의 미디어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Vol.81, 제1호, 153~186.
- 정은경 (2017). 경계를 넘어, 함께. <2017 마을공동체미디어 포럼 발표 자료집>
- 정선영 (2015). 존 스투어트 밀의 '자유'개념 및 교육론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맹기 (1995). 밀의 언론관 : 교육기구로서의 언론. <한국언론학보>, Vol.-, 33호, 229-266.
- 존 스투어트 밀 (2020). 존 스투어트 밀 선집. 서병훈 옮김, 서울: 책세상.
- 최성은 (2010). 국가규제와 공공지원이 공동체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공동체 라디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9). 공동체미디어운동의 현황과 과제. <연속토론회 발표집>, 1~12.
- 페르디난트 퇴니스 (2017).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곽노완·황기우 옮김, 서울: 라움.
- 하버마스 (2006). 의사소통행위이론 I :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장춘익 옮김, 서울: 나남출판.
- (2006). 의사소통행위이론 II :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위하여. 장춘익 옮김, 서울: 나남출판.
- (2016). 공론장의 구조변동. 하상복 역, 서울: 세창미디어.
- 현혜경·염미경 (2020). 제주지역 마을공동체 조사지표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회복력 평가지표 탐색. <제주도연구>, Vol.52, 75~101.
- 황상현 (2009). 커뮤니케이션 권리 채널로서 지역방송에 대한 고찰 : 대구, 경북 지역 민방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illery, G. A.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Vol. 20(2), 779~791.
- McQuail, D. (2005). *Mass Communication Theory*. London: Sage.
- Rodriguez, C. (2001). *Fissures in the mediascape: An international study of citizen' media*. Cresskill, NJ: Hampton Press.
- Rosengren, K, E. (1974). Uses and Gratification: A Paradigm Outlined. In J.G. Katz(Eds.). *The uses of Mass Communication: Current Perspectives in Gratifications Research*. Beverly Hills: Sage.
- Show, M & Martin, I. (2000). Community Work, Citizenship and Democracy : Re-making the Connections. *Community Development*, Vol. 35(4), 401~413.
- Tabing, L (2002). How to do Community Radio : A Primer for Community Radio Operators. New Delhi: UNESCO.

## Abstract

# A Study of Jeju Village Community Media

Village community media has already started in communications between villages and local residents, with the concerns in the community, and in changes of the media environment. This study has a sense of the problem of 'Can the community be sustainable in modern society?', and as a solution to this, we examined how the village community media works and affects in the area where the locals liv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about community revitalization in the Jeju. The enactment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Village Community Media Support Ordinance” is contribute to “democratic communications with residents and vitalization of living culture in the community that is newly formed in Jeju” .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ole of village community media in Jeju Island was researched in relation to social issues such as conflicts over current issues, imbalances with regions, and sustainability of villages and communities.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people who are actively working on Jeju village community media, and the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o listen to the genuine stories through conversations with the study subjec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eginning and the process of village community media of the research subjects, it was found that village community media started with attention in community revitalization, communication through media, and administrative support inside and outside the provin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ommunity media creators used media for education and used acquaintances to induc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orts of the community media creators made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a community.

Based on the result of analyzing the actions and roles of creators who keep running village community media, the media creators recognized the important function of archiving to record the information of villages and people. They were also making oral records and current records for future generations. Moreover, they all agree to the aim of village community media is to realize residents' social participation voluntarily and they also focused on encouraging residents' participants beyond recording and communica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how to operate and the future tasks to vitalize the village media, village community media creators were in charge of all tasks that were necessary to produce the media. For continuous maintenance and operation, internal conditions such as psychological compensation for participants, making a killing program, and strengthening of activists' capabilities were necessary. At the same time,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legal and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administrative support, and copyright issues were necessary simultaneously.

Overal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s that village community media plays an important function and role in activating the community, and that village community media can be sustainable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al aid and community.

Keywords: village community media, community vitalization, sustainability

## 감사의 글

논문을 마무리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이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석사과정을 하면서 머릿속에 내내 떠올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한 문장 한 문장 고민했던 결과물이 나온다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한 편의 논문이 나오기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분들에게 이 글을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때론 선배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박경숙 교수님의 큰 지도 아래 제가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던 최낙진 교수님, 이서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김정호 교수님, 김희정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논문의 심층 인터뷰 요청에도 흔쾌히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외도마을방송 라이브소울>의 강창석 대표님, <공동체미디어 제주살래>의 안광희 대표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육지 멀리에서도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저를 최고로 여기시는 부모님과 항상 사랑과 정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제게 용기와 힘을 주었던 누나, 매형, 처제, 동서, 사랑스런 조카들 모두 고맙습니다.

제주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마을공동체를 실천하며 살고 있는 윤아네, 로사네, 제열이네, 진웅이네, 선율이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하며 공부하며 힘든 내색에도 마음을 다해 응원해 준 우리 소도리 식구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명, 아내 정은과 딸 선율.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아직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많지만 모두 나열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의 마음 깊이 간직하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주현 올림

